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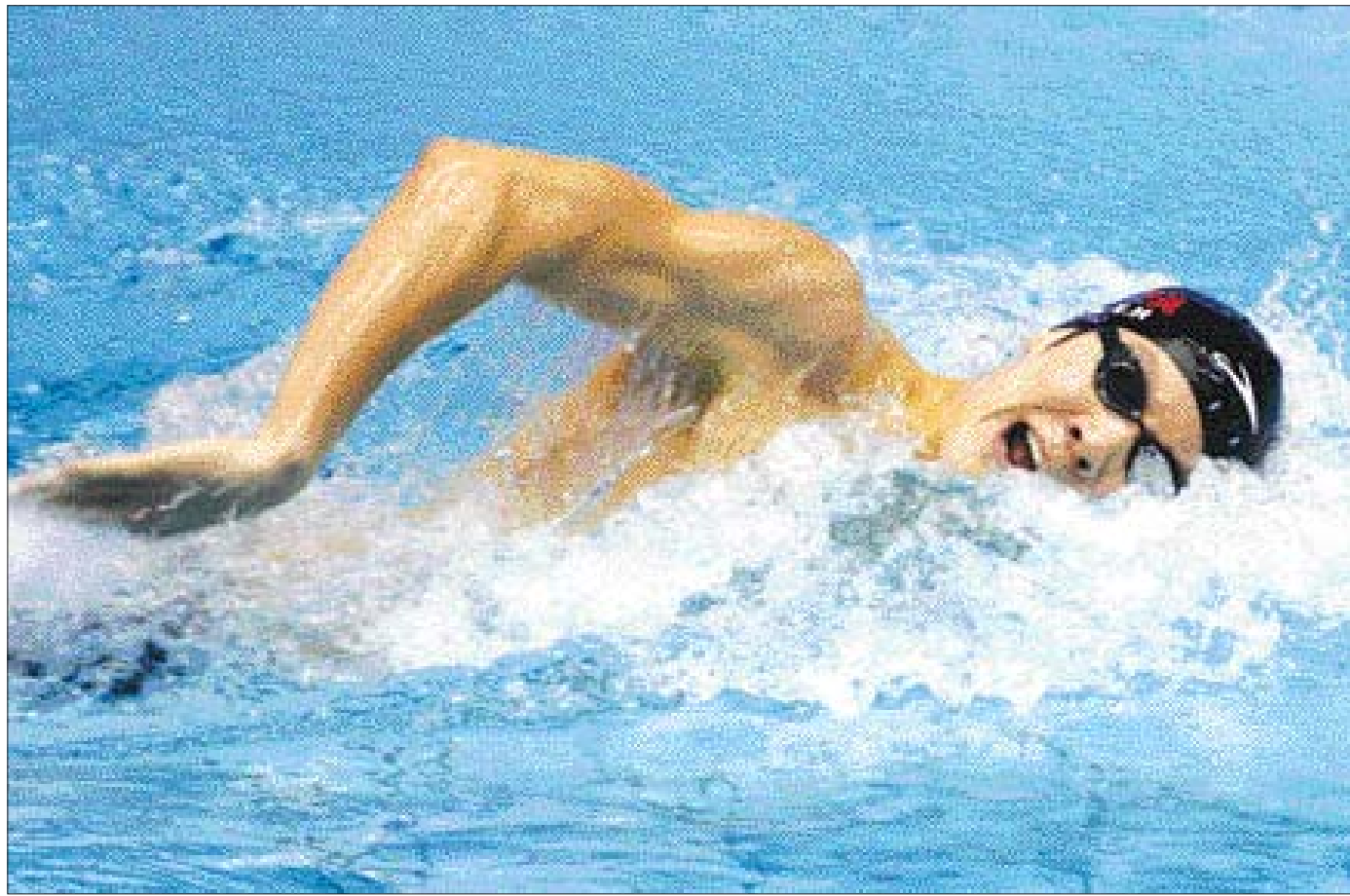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포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박태환 1,500m 가능성 봤다

日국제수영 자유형 1,500m 결승 해켓·쇼리모비츠 이어 동메달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수영 프레올림픽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자유형 1,500m에서 세계 정상급 선수들과 치열한 레이스를 펼친 끝에 3위를 차지했다. 박태환은 23일 일본 지바 국제종합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자 자유형 1,500m 2주에서 14분58초43에 터치패드를 찍어 그랜드 해켓(호주), 마테우즈 쇼리모비츠(폴란드)

에 뒤져 3위에 그쳤다. 자유형 장거리의 ‘10년 황제’ 해켓은 14분 48초70에 들어와 1위를 차지했다. 반신 수영복을 입고 3번 레인에 선 박태환은 초반 세계기록 보유자 해켓, 세계선수권 대회 우승자 쇼리모비츠, 데이비드 데이비스(영국)와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였다. 데이비스가 뒤로 쳐져 3위권이 된 다음 박

태환은 1,200m까지 해켓, 쇼리모비츠와 박빙의 레이스를 벌였지만 250m를 남기고 스피드를 한 해켓에 조금씩 뒤지기 시작했고 마지막 50m를 남기고 앞서 탄한 해켓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힘에 부쳤다. 박태환은 그러나 작년 도하아시아게임에서 세운 14분55초03에 불과 3초 남짓 밖에 뒤지지 않는 좋은 기록을 내 가능성을 확인했다.

■ 박태환 앞으로 보완해야 할 점

꾸준한 체력 훈련 절실 장거리 막판 힘 키워야

‘마린보이’ 박태환(18·경기고)이 주종목인 자유형 1,500m 금메달 사냥에 또 실패하면서 ‘벼락치기’ 훈련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지난 3월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세계수영 선수권대회 자유형 1,500m 예선에서 9위에 그치며 결승 문턱에서 탈락했던 박태환은 23일(한국시간) 프레올림픽인 ‘2007 일본국제수영대회’ 1,500m에서도 3위에 그쳤다. 이번 대회에서 박태환은 자유형 400m 타이

틀 방어에 성공했지만 자신이 좋은 자신있게 밝힌 ‘올림픽 2관왕’의 꿈은 아직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자유형 1,500m는 육상에서 마라톤과 같은 종목. 꾸준한 훈련만이 성공의 유일한 열쇠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박태환의 훈련 과정을 보면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못한 게 사실이다. 세계선수권대회를 마치고 귀국한 박태환

은 4월 한 달은 거의 훈련을 하지 못했다. 5월에야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작했는데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고독 그 자체인 수영 훈련의 동반자인 훈련 파트너도 많았었다. 물론 박태환은 세계선수권대회 때 실패를 교훈 삼아 1,500m에 힘을 쏟았다. 박석기 감독은 훈련의 초점을 지구력 가다듬기에 맞췄다. 일주일엔 한 번씩 2,000m를 쉬지 않고 해업치게 하는 테스트를 실시하며 거리 감각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기홍 웨이트트레이너도 기종에 갖췄던 근력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근지구력을 살리는 데 중점을 뒀다. 지구력을 끌어올리는데 초점을 맞춘다고 했지만 절대적인 훈련량이 부족했다. 하지만 박태환에게는 이번 대회에서 맛 본 실패가 오히려 약이 될 수도 있다.



한국, 오늘 오후 8시 토고와 A조 최종전

“주성환, 골문을 열어라”

반드시 이겨야 와일드 카드로 16강 실낱희망

오직 승리만이 실낱같은 16강 진출 가능성의 필수조건이 됐다.

2연패로 조별리그 탈락의 위기에 몰린 17세이하(U-17) 청소년축구대표팀이 24일 오후 8시 울산종합운동장에서 아프리카의 북방 토고(2부·승점2)와 2007 국제축구연맹(FIFA) U17 월드컵 조별리그 A조 최종전을 치른다.

A조 최하위로 밀려나 있는 한국은 이번 토고전에서 반드시 승리해야만 조 3위로 올라서 3위 팀들에게 주어지는 4장의 16강행 ‘와일드 카드’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반대로 비기거나 지면 그대로 A조 꼴찌가 확정, 한국 축구로서는 2007 FIFA U20 월드컵에 이어 2개 대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이라는 최악의 성적을 거두게 된다.

박경훈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4강 신화’의 원대한 포부를 안고 조별리그에 나섰다. 두 경기를 치른 성적표는 초라하기만 하다.

대표팀은 두 경기에서 무려 26차례(코너킥 22회, 프리킥 4회)의 세트피스 상황을 맞았지만 골로 연결하지 못했다. 더구나 31차례의 슈트 모두 골대를 외면했고 오히려 3실점을 당했다.

이에 따라 토고와 마지막 경기를 앞둔 박경훈은 조별리그에서 탈락을 하더라도 최소한 3경기 연속 노골의 치욕만은 당할 수 없다는 각오 뿐이다.



〈주성환〉



숨을 바꿀 경우 조직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민스럽다.

이에 따라 최전방 공격진은 주성환(광양제철고)을 왼쪽으로 배치(포철공고)와 최진수(현대고)를 좌우에 우선적으로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수비형 미드필더 한국영(강릉문성고)이 경교능적으로 토고전에 나설 수 없게 돼 박 감독은 그동안 공격형 미드필더를 맡았던 윤빛가람(부경고)을 조범석(신갈고)과 함께 ‘더블 볼란테’로 내릴 예정이다.

대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는 김정현(현대고)가 출격을 준비하고 있다.

포백(4-back)라인에도 변화가 생긴다. 코칭스태프는 코스타리카와 2차전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오재석(신갈고) 대신 1차전에서 퇴장당했던 한승수(중동고)를 왼쪽 윙백으로 출격시키고, 정현윤(광양제철고)을 오른쪽 윙백에 내세울 전망이다.

중앙 수비는 임종은(현대고)-김동철(태성고) 듀오가 그대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김승규(울산)가 맡게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박성화호 짜릿한 역전승

올림픽축구 亞최종에선 우즈베키스탄 2-1 제압

역전승을 거뒀다.

한국은 조 1위만 본선 티켓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바늘구멍’ 예선에서 첫 승으로 승점 3을 챙겨 기선을 제압했다.

올림픽호는 2차 예선에서 두 번 만났던 우즈베키스탄을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물리

쳤다. 김 배백 감독이 떠나고 우여곡절 끝에 지휘봉을 잡은 박성화 감독은 위기의 한국 축구를 구해낼 조타수로 첫 임무를 성공적으로 해냈다.

한편 올림픽대표팀은 일단 해산해 소속팀에 복귀했다가 재소집, 중동 원정길에 올라 현지시간 다음달 8일 바레인고 최종예선 2차전 어웨이 경기를 치른다. 박성화호는 첫 장거리 원정길에 6회 연속 본선행의 고비가 될 전망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박성화호 데뷔전 결과

공격 전개 빨라졌지만 패스 정확도는 떨어져

“공격의 전개는 빨라 졌지만 패스의 정확도가 떨어졌다”

6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을 목표로 출항한 박성화호가 배어백호 시절보다 한 단계 빨라진 공격전개를 보여주면서 시원한 승리를 맛봤지만 패스의 정확성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겼다.

올림픽축구대표팀은 지난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진 2008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차전 우즈베키스탄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본선진출을 향한 첫 걸음을 가볍게 시작했다.

관심은 ‘수비전문 감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는 박성화 감독이 어떤 스타일의 축구를 보여주느냐에 쏠렸다.

박 감독은 우즈베키스탄을 맞아 이미 배어백호부터 다져진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결 빨라진 공격전개와 함께 불필요한 패스를 줄이면서 한층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데 성공했다.

최진한(동북고 감독) 스포츠간 해설위원은 “전방으로 향하는 빠른 패스가 인상적”이라며 “배어백호 시절보다 공격의 속도가 한결 빨라졌다”고 분석했다.

배어백호 때는 볼 소유를 늘리기 위해 잦은 롱패스와 횡패스가 이어지면서 경기의 속도가 느렸지만 박성화호는 불필요한 패스를 줄이면서 속도가 살아났다는 것.

최 위원은 또 “포지셔널 간격조절도 잘됐지만 아쉽게도 패스의 정확성이 떨어져 좋은 기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쉬운 점은 포백의 집중력이 떨어졌다는 것.

최 위원은 “강민수가 여러 차례 공중볼을 놓치면서 상대에게 헤딩슛을 허용했다”며 “김진규와 강민수의 경우 아시안컵을 비롯해 K-리그 경기까지 모두 소화하면서 체력적으로 지쳐있는 것 같다. 체력이 결국 집중력 저하를 부르면서 자책골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박문성 SBS 축구해설위원도 “좌우 측면 공격이 살아났지만 상대적으로 스트라이커들의 움직임은 아쉬움을 남겼다”고 분석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광주-전남 내일 맞대결



“누구를 응원할까?”

‘동향 라이벌’ 광주 상무와 전남드래곤즈가 ‘펼쳐탈출’과 ‘6강 플레이오프 진입’의 꿈을 안고 물러설 수 없는 한판대결을 벌인다. 결전지는 오는 25일 오후 4시 30분 순천 팔마경기장이다.

역대 전적에선 광주가 14전 1승 5무 8패로 절대적으로 뒤진다. 광주는 창단 첫 해인 2003년 1승을 거뒀을 뿐 이후 4시즌 동안 단 1승도 건지지 못하는 등 ‘전남 징크스’에 시달리고 있다.

하지만 최근 광주의 상승세를 보면 2연승도 노려볼 만 하다.

광주는 지난 18일 홈에서 대구FC를 상대로 2개월여만에 승리를 거두며 귀중한 승점 3을 추가, 탈출세를 향한 시동을 걸었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13위 부산과 승점차를 3점으로 좁혀놓은 상태다.

광주는 최근 성남, 서울, 대구와의 3연전에서도 단 2실점으로, 1승1무1패를 기록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성 하우젠 K-리그 2007 중간 순위 (23일현재)

순위	팀	승점	승	무	패	득	실	차
1	성남	38	11	5	1	29	9	20
2	수원	34	10	4	3	28	18	10
3	울산	28	7	7	3	21	16	5
4	전북	27	8	3	6	27	21	6
5	경남	25	7	4	6	28	22	6
6	인천	23	6	5	6	19	20	-1
7	포항	23	6	5	6	16	19	-3
8	전남	22	5	7	5	18	18	0
9	서울	22	4	10	3	11	11	0
10	대전	19	4	7	6	18	18	0
11	제주	18	5	3	9	14	23	-9
12	대구	16	4	4	9	22	29	-7
13	부산	14	3	5	9	16	24	-8
14	광주	11	2	5	10	9	28	-19

이 상대의 공세를 뚫고 들어맞고 있다.

여기에 남궁도가 주축이 된 공격진도 위협적이다. 남궁도는 지난 대구FC와의 경기에서 1골을 추가하며 올 시즌 7골로 한 시즌 개인 최다골을 경신했다. 프로 데뷔 후 최상의 골 감각을 보이고 있는 것.

특히 전남 출신인 남궁도는 이번 친정팀과의 대결에서 더욱 효과적인 공격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반면 전남은 최근 2경기에서 연패를 하는 바람에 8위까지 추락했다. 리그 6위까지 진출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 티켓 경쟁에서 밀려나는 분위기다.

하지만 전남은 이번 광주전 이후 수원, 울산, 포항 등 강팀들과의 맞대결이 예고돼 있어 이번 광주전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각오다. 또 광주만 만나면 유독 쉽게 이기는 분위기도 반갑다. 양팀의 승부가 쉽게 접치지 않는 이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안정된 수비라인이 가장 큰 힘이다. 지난 성남전부터 베테랑 김영근을 센터백으로 내리고, 좌우에 한태유, 구경원을 배치했고, 또 상대에 따라 좌, 우 날개로 있는 강용과 마철준까지 내려 5명의 수비진